

# “밥 온기로 살아가듯 시 온기로 슬픔 견뎠다”

‘땅끝 시인’ 김경운 시인 네 번째 시집 ‘슬픔의 바다’ 펴내

33년 교직 정년 퇴임 기념 시집  
사고로 세상 떠난 이들에 대한 헌시  
26일 비타포럼 북콘서트 사상송  
김남주시인 기념사업회도 이끌어

성화에 기여했다. 시집 발간 소식을 전해오는 시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올해 3년을 맞아 ‘탈상’의 의미로 아들에게 바치는 시집을 발간했지요. 정년 퇴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올해가 등단 3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구요.”

“분필집” 33년, ‘시(詩)밥’ 30년을 먹고 살아온 그간의 삶을 정리하는 작품집. “지난 4년간 잡지나 매체에 발표한 시들과 묵혀 두었던 미발표 몇 편이 묶이게 된 것이다.”

이번 작품집의 주된 정조는 슬픔이다. 보내온 시집을 펼쳐보는 순간 제목이 전하는 말이 예사롭지 않았던 터라 시인의 말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다. 그는 “내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나와 같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곡비(哭聲)처럼 울었던 내면의 노래가 작품집이 되었다”고 말했다.

추천사를 쓴 황지우 시인도 “사랑 궁극적으로 울음이다”는 명제에 도달한 듯 보인다. 89년 전교조 결성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교단을 떠났다. 5년 동안 거리의 교사로 살았고, 한편으로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상근자로 활동했다. “참교육 운동을 했어요. 당시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실이 대인동에 있었는데 용봉동 상하방에서 살면서 대인동까지 걸어 다녔지요. 해직기간에는 우유값을 걱정할



지 울어 본 자만이 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슬픔의 가파른 언덕길을 걷는 동안/ 기도는 하늘에 있지 않고/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라는 걸 알았다...”

표제시 ‘슬픔의 바다’는 3년 전 대학생이던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 “번개 삼킨 나무”처럼 살았던 시인의 고통을 상징한다. “참적(慘戚)은, 무어라 말하기 힘든 고통이자 참 아프고 무서운 말”은 이해와 공감의 수준을 능가한다.

시인은 젊은 시절에는 해직의 아픔도 겪었다. 89년 전교조 결성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교단을 떠났다. 5년 동안 거리의 교사로 살았고, 한편으로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상근자로 활동했다. “참교육 운동을 했어요. 당시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실이 대인동에 있었는데 용봉동 상하방에서 살면서 대인동까지 걸어 다녔지요. 해직기간에는 우유값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당시는 어렵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무잡하고 가혹한 시간’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 시기에 문학 공부도 참 열심히 했다. 해직 이후 참교육 활동과 시작 활동을 부지런히 했고 94년 해남으로 복직한다.

이후 땅끝문학회를 결성해 고향 선배인 김남주 시인을 추모하고 선양하는 일에 매진했다. 2000년 김남주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그 후 매년 ‘김남주추모제’와 ‘김남주문학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에게 김남주 시인은 ‘정신적 혈육’ 같은 존재다. 그는 ‘김남주 정신’은 자신의 믿는 바를 위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이웃만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남주는 시와 삶이 일치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지요.”

김경운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자신의 슬픔에만 갇혀 있지는 않는다. ‘슬픔의 바다’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알기에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기억시’를 쓰고 낭송회도 다니며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공유하기도 했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그는 “당장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여행도 많이 하고 그간 미루어 두었던 책들도 읽고 ‘명상과 영성’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제 48회 비타포럼 북콘서트에 김경운 시인이 초대됐다. 고영서 시인의 사회로 서애숙, 김민후 시인의 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향·섬·누이... 유년의 체험 통한 정체성 찾기

완도 출신 김인석 시인  
‘피멍이 자수정 되어...’ 펴내

완도 출신 김인석 시인이 작품집 ‘피멍이 자수정 되어 새기 몇을 품고 있다’ (천년의시)를 펴냈다.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으로 출간된 시집에는 모두 71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고재종 시인의 ‘고통, 통증, 비명, 피 등 격정적 울분의 언어가 수시로 출몰하는 장’이라는 추천사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애뜻하고 절절하다.

무엇보다 고향, 옛집, 섬, 누이, 꽃, 집 등 다양한 주제가 시인의 시선이 과거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유년의 원체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망으로 풀이된다.

“당신이 내어준 환한 웃음 뒤쪽에는/ 천둥 같은 슬픔이 피어있다/ 주름살마저 허물어졌다/ 화강암으로 문쳐져 생겨난 / 내설악 같은 심장/ 온 힘 다해 날카로운 정으로 한구씩 깨어보니/ 피멍이 자



수정 되어 새기 몇을 품고 있다.”(‘어머니’ 전문)

위의 시 ‘어머니’에는 모성과 고향으로 상징되는 원초적인 기억과 감성이 녹아 있다. 시인의 시 출발점이자 궁극적 지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시인은 어린 시절의 ‘집’을 통해 존재의 인식처이자 영혼의 안식처로 삼는다. 집이 현재적 삶을 돌아보는 토대이자 미래를 성찰하는 모티브로 다가온다.

김산 시인은 해설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알면서도 그 속으로 몸을 던지는 자가 시인”이라고 평한다.

한편 김인석 시인은 1990년 시집 ‘목타는 그리움’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그대 영혼에 사랑의 수를 놓으리라’, ‘실뿔기’, ‘봄의 무게’ 등을 펴냈으며 2008년 ‘광주문학’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24일 ‘찾아가는 오픈스쿨’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매월 개최하는 ‘문화도시 오픈스쿨’을 확대해 ‘찾아가는 오픈스쿨’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전남대 문화전당대학원과 공동 진행하는 문화도시 오픈스쿨은 ‘문·전·성·시’라는 타이틀로 매월 24일 전당에서 열리고 있으며 이번엔 각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오픈스쿨’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4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6층 세미나실 6109호에서 열리는 첫번째 강연에는 충남연구원 정지은(사진)박사가 참여해 ‘세계의 문화도시’를 주제로 강연한다. 정박사는 성균관대 공연예술학 석·박



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는 충남연구원 문화예술정책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10월에는 광주대, 11월에는 호남대에서 행사가 열린다.

한편 ‘문·전·성·시’ 9월 행사는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이길형 총감독(홍익대 광고디자인학과 교수)을 초청해 24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열린다. 주제는 ‘문화도시 디자인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뮤지컬로 만나는 ‘도산 안창호’

흥사단, 25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도산 정신으로 대한민국 의미 되새겨

(사)흥사단이 25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뮤지컬 ‘도산 안창호’를 공연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공연은 안창호 선생의 정신과 업적, 나라의 중요성과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도산의 미국 오렌지 농장에서의 독립운동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등을 풀어낼 계획이다. 마주 공립협회, 신민회, 대한인국민회, 임시정부 등을 관통해서 전승되는 ‘대한민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강, 김필순, 신재호, 김마리아, 손정도, 차리석 등 안창호의 동료들을 새롭게 조



있다. 무료 공연(사전 접수 필수).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명하는 자리다. 이은숙 흥사단 교육수련원 원장이 대본을 썼으며 이재운이 연출을 맡았다. 김남훈·김홍부·구정은·이우진 등 13명의 배우가 출연한다. 뮤지컬 ‘도산 안창호’는 11월 16-17일 서울 나루아트센터, 11월 27일 화곡청소년센터대강당 등지에서 만나볼 수

‘뒀뒀’ ‘영덩이’ 등 뜻풀이 추가  
국립정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명사 ‘뒀뒀’과 ‘영덩이’, 동사 ‘그리하다’, 형용사 ‘에민하다’ 뜻풀이가 추가됐다.

국립국어원이 22일 공개한 상반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뒀뒀이는 본래 ‘사람으로서 지니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만을 뜻했으나 ‘사물 따위의 드러난 모양새나 특성’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

‘영덩이’는 ‘불기의 윗부분’이라는 뜻에 ‘불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뜻풀이가 추가됐다.

또 ‘그리하다’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 외에 ‘알말과 반대되게 행동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하게 됐다. 예컨대 ‘열차가 떠났다니. 조금만 더 서두를 것을 그리했어’는 두 번째 뜻풀이를 적용한 것이다. ‘에민하다’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지나치게 날카롭다’는 뜻풀이가 삽입됐다. /연합뉴스

## 전남대·광주시평생교육진흥원 ‘도시와 인문학’ 강좌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등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조명하는 강좌가 열린다.

전남대학교 인문대학(학장 류재한)과 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운)은 시도민·학생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26일부터 11월 4일까지(오후 7시30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도시와 인문학’을 주제로 전남대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홀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아파트에 숨어서 쉬는 한숨’(26일), ‘눈물나게 좋은 날의 상상’

(10월 10일),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17일)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송하영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가 ‘동서양 낮아지는 랜드마크’(24일)와 ‘도시건축 해석의 깊이’(31일)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또한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가 ‘기억공간과 현대예술’(11월 7일), 신해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의(義)와 호남의 도시: 의복(義錄) 문헌의 변천’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좋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 010-2831-9257

####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 062)528-7711, 010-3612-9794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 062)232-0038, 010-2290-0038

####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용석 ☎ 010-8003-9000

####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 062)222-2424, 011-664-2202

####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웃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 062)370-9258

####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텐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 010-4106-5055

####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 010-6648-8842

####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 062)263-5383, 010-6338-5383

####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섭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 010-9866-2332

####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앞길)  
하모(침장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 062)222-3092

####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 062)526-5475, 010-8621-5959

####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블스크린, 천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 062)514-6118, 010-5627-6119